



MVT Implication Note (mid-term)

학과 :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

학번 : 2019147503

이름 : 임희원

Hypothesis

1. 문제 정의 : 법률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방대한 법률 및 판례 정보를 검색하고 분류하며 최신 정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업무 피로를 겪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특히나 소위 '어쏘' 변호사라고 하는 저연차 변호사들이 과로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심리적 및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며, 이는 결국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변호사의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서 과로사 빈도도 높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로펌의 고위급 파트너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업무 과정이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객 서비스의 질과 로펌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률 조사 과정 때문에 전략 수립이나 고객 상담과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해결책 설명 (아이디어) : 검색 증강 생성(RAG) 및 초거대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판례, 법의안 등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3. XyZ 가설 : 변호사를 포함한 노무사, 법무사, 공무원 등등의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의 1%는 ai를 활용한 법률 지원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 적어도 1%(X)의 법조계 관련 종사자(Y)들은 ai를 활용한 법률 지원 서비스(Z)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Hooking

1. 배포처 :

- 디스콰이엇 (스타트업 전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연세대학교 행정법학회 단톡방
- 에브리타임 로스쿨 준비생 모임 게시판
- 디시인사이드 변호사 시험 갤러리
- 연세대 개발자 및 IT 업계 동문 카톡방
- (예정) 블라인드 블라블라 게시판 → 11월 7일 가입 이후 72시간 이내 게시물 작성 제한

2. 배포 카피 :

- 디스콰이엇: <https://disquiet.io/log/https-ai4law-netlify-app-%EB%B3%80%ED%98%B8%EC%82%AC%EB%B6%84%EB%93%A4-%EC%97%85%EB%AC%B4%ED%95%A0%EB%95%8C-ai-%EC%93%B0%EB%8A%94%EA%B2%8C-%EC%9D%98%EB%AF%B8%EA%B0%80-%EC%9E%88>
- 에브리타임 로스쿨 준비생 모임 게시판 (로그인 필수):
<https://everytime.kr/414921/v/359327507>
- 디시인사이드 변호사 시험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awlawlaw&no=138863&page=1>

3. 배포 게시물 내용 :

- 디스콰이엇
[랜딩페이지 링크]
변호사분들 업무할때 ai 쓰는게 의미가 있나요?
이런 서비스 되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연세대학교 행정법학회 단톡방
지인을 통해서 링크 전달
- 에브리타임
제목: 변호사 vs AI
내용: [랜딩페이지 링크] 요즘 이런거 진짜 많지않음?
- 변호사 시험 갤러리
제목: [일반] 변호사들 ai 쓰긴 하나

내용: [랜딩페이지 링크] 요즘 이런거 진짜 많던데

- (예정) 블라인드

제목: 변호사들 업무할때 AI 쓰는게 의미가 있어?

내용: [랜딩페이지 링크]

지인한테 링크 받았는데 이런 서비스 되게 많지 않나

실제로 쓰는지 궁금하네

4. 배포처 조회수 (측정 가능한 경우) : [24.11.08 00시 기준]

- 연세대학교 행정법학회 단톡방 : 약 30명
- 연세대 개발자 및 IT 업계 동문 카톡방 : 약 300명
- 변호사 시험 갤러리 : 게시글 삭제됨

Landing

1. 랜딩(MVT) 페이지 주소 : <https://ai4law.netlify.app/>

2. 랜딩 페이지 방문자 수 : [24.11.08 00시 기준 중복 포함] 212명

3. 방문자수 데이터 분석 : [24.11.08 00시 기준]

중복 제거 고유 인원 수 - 162명

에브리타임(<https://everytime.kr/>)에서의 접근 - 52회 (24.5%)

디스콰이엇(<https://disquiet.io/>)에서의 접근 - 4회 (0.2%)

구글(<https://www.google.com/>)에서의 접근 - 3회 (0.1%)

모든 경우에서 utm이 기록되지 않음

대부분(72%)의 경우 referer이 기록되지 않음

데스크탑 접근 76회 (36%) 모바일 접근 136회 (64%)

Acquisition

1. 사용자 인센티브 :

이메일 주소 및 개선해야할 점을 남길 경우 서비스 런칭 시 1달 무료 이용권 제공

추후 서비스 개발 시 이메일 기록 기준으로 보상 지급 예정

2. 획득 사용자 수 : [24.11.08 00시 기준]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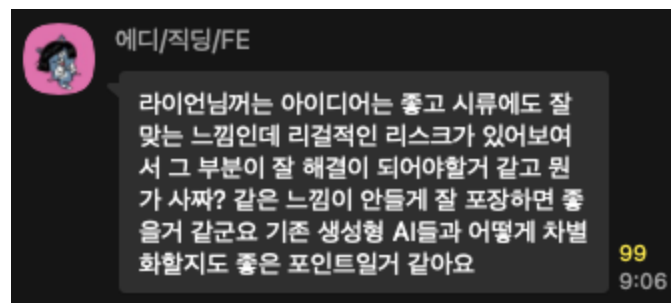
3. 획득 사용자 데이터 분석 :

- 1번 사용자 - 로스쿨생
개선사항: 안전한 AI 서비스였으면 좋겠습니다
- 2번 사용자 - 로스쿨생
개선사항: 없음
- 3번 사용자 - 로스쿨생
개선사항: 없음

Implication

1. MVT 결과 분석 :

- 원체 법조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랜딩페이지 내의 카피라이트 자체를 “변호사를 대체하는 AI”가 아닌 “변호사를 위한 AI”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였음
- 법률 업계 자체로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 측면에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사용자 입력 폼에 이메일, 개선사항 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 사용자인지도 적는 input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시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음
- 연세대 개발자 및 IT 업계 카톡방 피드백



2. 시사점 :

- 최근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 기반의 법률 상담 서비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 대륙아주 서비스가 변호사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주체로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자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변호사 협회 내부 자체 징계를 받은 사례지만 서비스의 방향성이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함

- AI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면서, AI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와 실제 법률 상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실무 경험이 없는 로스쿨생보다 실제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직종의 의견이 많이 필요했으나, 가입 과정에서의 폐쇄적인 커뮤니티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변호사 관련 커뮤니티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실질적 응답자의 대부분은 실무 경험이 없고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생이 대부분이었다.